『이중언어학』 제61호(2015.12.31). 二重言語學會

K-pop 노랫말들의 언어 혼종:

영어 변이형들과 코드전환 사용

박 준 언

Abstract

Park, Jun-Eon. 2015. 12. 31. **K-pop Lyrics' Language Hybridization: Use of English Varieties and Code-switching**. *Bilingual Research 61*, 95-124. This paper analyzed K-pop song texts in terms of language hybridization. The findings show that language hybridization proceeds in two ways: incorporating different varieties of English and code-switch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Different English varieties such as standard colloquial English, 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and Koreanized English are used in K-pop song texts. Also, code-switches are the significant mode of language use in all the K-pop song texts analyzed for the research. K-pop lyrical texts maximize Korean and English bilingual resources to appeal not only to the local Korean audience but to the global fans. In the language hybridization processes, English varieties and Korean/English code-switches are utilized as effective resources in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locality and the globality of the K-pop songs. **(Soongsil University)**

【Key words】 케이팝(K-pop), 글로컬화(glocalization), 언어혼종(language hybridization), 영어변이형(English varieties), 코드전환(code-switching), 미국흑인영어(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한국식 영어(Koreanized English)

1. 서론

오늘날 한류는 아시아권에서 하나의 커다란 문화적 흐름을 형성하며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있으며 점차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탈 아시아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류 문화상품들은 K-pop, K-drama/movie, K-food, K-fashion/beauty 등 다양한 K-culture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중 K-pop은 한류문화 확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K-pop의 두드러진 특징은 철저한 글로컬화(glocalization)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K-pop의 글로컬화 전략의 구체적 발현은 hip-hop, rhythm-&-blues, rap등의 미국 흑인음악장르를 포함해 북유럽의 강렬한 전자음악의 도입, 현란한 댄스를 접목한 음악 장르의 혼종화(hybridization)이다. 그러나 K-pop의 글로컬화는 단순히 음악장르의 혼종화에 그치지 않고, 노랫말의 언어 혼종화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K-pop 노랫말이 이전의 한국 가요들의 노랫말과 차별화되는 특징으로서, 노랫말의 상당부분이 영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간의 혼용은 단순히 어휘 차원을 넘어 양 언어 간에 구절, 문장 및 담화차원으로 이어지는 고도의 코드 전환(code-switching)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K-pop 노랫말들의 코드전환의 기저언어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박준언, 2014). 본 논문에서는 언어적 글로컬화 차원에서 K-pop 노랫말의 언어 혼종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K-pop 노랫말들에 사용된 영어 변이형들의 혼종 사례와 이중언어 코드전환의 기능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글로컬화(glocalization) 개념 및 K-pop의 글로컬화

‘glocal’은 ‘global’과 ‘local’이 합성된 신종 어휘로서, 세계성과 지역성을 결합하는 개념이다. Pieterse(2010)는 역사적 맥락에서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틀을 크게 문화 간 차별(differentialism), 획일적 문화융합(convergence), 이질 문화 간 혼합(mixing)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이질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각 범주별 글로벌화 개념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 간 차별주의는 글로벌화를 단순히 표면적 현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지역화 또는 지역적 블록화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화는 이들 지역적 블록들 간의 경쟁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획일적 문화융합주의는 글로벌화를 서구화 또는 미국화로 인식하고 있는 바, 서구 중심의 고전적 제국주의 및 현대화 명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질문화 간 혼합주의는 글로벌화의 결과를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 오늘날 글로벌화가 서구화 뿐 아니라 동양화(easternization)과정이라고 인식한다.

Robertson(2010)은 글로벌화를 정의할 때 동질화와 이질화간의 변증법적 대립적 구도를 지양하고 양자를 상보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글로벌화를 보편성과 특수성 공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글로벌화를 글로컬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Robertson이 정의한 바대로 글로벌화를 global과 local의 상보적 결합관계로 인식하는 글로컬화로 본다면 K-pop은 이러한 문화적 글로컬화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글로컬화는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로 대표되는 서구 및 미국 문화의 획일적, 글로벌 동질화와 달리 다양한 로컬적 요소들을 버무리는 혼종화를 통해 글로벌 동질화와 이질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대중음악이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음악들로부터 직, 간접적 영향을 받으며 이들 중심의 글로벌 문화동질화의 수용체 역할을 담당한 반면, K-pop은 단순한 수용체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로컬적 요소들을 혼합하여 초국가적 성격을 가미하며 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K-pop은 다양한 혼합 및 혼종을 통해 다양한 이질화를 시도함으로써 글로컬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이수안, 2012).

이러한 K-pop의 글로컬화 과정은 음악 장르, 공연기획 및 제작, 배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장르의 경우, R&B, hip-hop

스타일의 미국, 영국 팝뮤직 뿐 아니라, 북유럽의 전자댄스 음악을 혼합한 노래들이 K-pop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획 및 제작의 경우, 음악 제작 기획 단계부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 대중들을 위한 현지화를 시도하여 K-pop 아이돌 가수들 중 일부를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태국인 등 타 국적 멤버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아시아 중심의 현지화 전략을 넘어 북미,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탈 아시아적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음악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적 작곡가들을 영입하여 작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양재영, 2011).

K-pop의 글로컬화 전략은 음악 장르, 제작기획, 배분에 그치지 않고 노랫말의 언어 선택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K-pop 이전의 한국 대중가요들이 노랫말을 거의 전적으로 한국어로 만들었던 것에 비해 K-pop 노랫말들은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박준언(2014)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4개의 K-pop 그룹들의 242개 노랫말을 분석한 결과 총 10,257개의 노랫말 소절(lyrical line) 중 한국어 소절이 58.5%, 영어 소절이 25.3%, 한국어/영어 혼용의 코드전환 소절이 16.7%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중가요들의 노랫말들에 비해 엄청난 변화로서 K-pop 노랫말들이 이중언어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K-pop 노랫말들의 언어별 소절 수(박준언, 2014)

그룹명	소절 수	한국어	영어	한국어/영어
2NE1 (18곡)	1,033	601(58.2)	265 (25.7)	167 (16.2)
2PM (19곡)	587	396 (67.5)	106 (18.1)	85 (14.5)
비스트 (19곡)	849	505 (59.5)	235 (27.7)	109 (12.8)
빅뱅 (18곡)	1,157	653 (56.4)	344 (29.7)	160 (13.8)
샤이니 (18곡)	770	451 (58.6)	134 (17.4)	185 (24.0)
소녀시대 (10곡)	342	203 (59.4)	48 (14.0)	91 (26.6)

씨앤블루 (20곡)	683	403 (59.0)	154 (22.5)	126 (18.4)
에프엑스 (20곡)	752	424 (56.4)	164 (21.8)	164 (21.8)
원더걸스 (5곡)	293	151 (51.5)	91 (31.1)	51 (17.4)
인피니트 (17곡)	580	93 (16.0)	447 (77.1)	40 (6.9)
티아라 (19곡)	696	457 (65.7)	127 (18.2)	112 (16.1)
포미닛 (19곡)	896	434 (48.4)	278 (31.0)	184 (20.5)
ft아일랜드 (20곡)	712	650 (91.3)	33 (4.6)	29 (4.1)
슈퍼주니어(20곡)	907	580 (63.9)	171 (18.9)	156 (17.2)
총 242곡	10,257	6,001 (58.5%)	2,597 (25.3%)	1,659 (16.2%)

이는 K-pop 노랫말에 로컬 성격의 한국어와 글로벌 성격의 영어를 혼합함으로써 글로컬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노랫말을 한국어로만 제작할 경우 대상이 한국인에게만 국한되어 음악시장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영어로만 제작할 경우 대부분의 한국인 대중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를 혼합함으로써 소비자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대중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통용어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영어를 K-pop 노랫말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K-pop을 글로벌 음악으로 부상시키고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K-pop 노랫말의 한국어/영어 혼용의 이중언어화 전략은 K-pop으로서는 모험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통용성이 낮은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노랫말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모르는 대다수의 외국 대중들에게는 의미적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류의 폭발적 확산에 힘입어 해외 팬들 사이에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행히 이러한 언어적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게 되었다.

K-pop 노랫말의 이중언어화는 개인적 이중언어 사용을 넘어 사회적 이중언어 사용(societal bilingualism)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언어사용 환경 상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와 두 언어를 혼합하는 코드전환의 경우 이중언어 사용을 전제로 하는 언어사용 유형으로서, K-pop 노랫말들에서 코드전환 현상이 상당히 빈번하게(16.7%)발생하는 점은(박준언, 2014) K-pop의 소비자인 국내외 팬들이 부분적이나마 한국어/영어의 이중언어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준언(2010)은 우리나라 제품 및 기업 광고문들을 분석한 결과, 상업 광고 영역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혼용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적어도 상업 광고 분야에서는 한국어/영어의 사회적 이중언어 사용 영역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

K-pop 노랫말의 적극적 영어사용은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사용의 변화 과정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소수의 특정 영역에서 영어가 더 이상 단순 외국어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서서히 제2언어로 위상 전환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영어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영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로 인해 부분적이나마 한국어/영어의 이중언어 사용자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체계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K-pop은 이러한 한국어/영어의 이중언어 수용성을 전제로 글로컬화 전략을 언어적 차원에서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로컬 언어인 한국어와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노랫말에 적절하게 접목함으로써 기존의 팝송 및 한국 대중가요와 차별화되는 이질적 언어자원을 혼종화하여 글로벌 음악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

1) 연구에 사용된 11개 분야의 118개 주요 상업 광고문들의 문구 중, 한글 사용이 40.8%에 그치고 있는 반면, 영어사용이 18.7%, 한국어/영어의 혼용이 40.5%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K-pop 노랫말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박준언(2014)의 K-pop 노랫말 코드전환 기저언어 설정 연구[2]에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다. 여기에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그룹 '엑소'의 노랫말들을 추가하였다. '2NE1', '2PM', '비스트', '빅뱅', '샤이니', '소녀시대', '씨앤블루', '에프엑스', '원더걸스', '인피니트', '티아라', '포미닛', 'ft아일랜드', '슈퍼주니, 등 15개 K-pop 그룹들로부터 262개의 노랫말들을 선정하였으며, 노랫말 수집을 위해 전문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 공개된 각 그룹들의 노랫말들을 발췌하였다[3]. K-pop 노랫말들의 언어혼종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그룹별로 노랫말들에 사용된 영어 변이형들과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의 코드전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4. K-pop 노랫말의 영어 변이형 혼용

K-pop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언어 혼종은 영어 변이형 혼용과 한국어/영어의 코드전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우선 영어 변이형 혼용에 관해 고찰해보기로 하자. K-pop 노랫말들의 분석 결과, 일반 구어영어(colloquial English)와 함께, 미국흑인영어(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AAVE)와 한국식 영어(Koreanized English)등의 영어 변이형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62곡의 K-pop 노랫말들에 사용된 영어 변이형들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를 산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랫말들에 사용된 영어들이 개별 어휘, 구, 절, 문장 등, 다양한 언어 단위들로 혼재되

2) 이 연구에서는 K-pop 노랫말들의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의 코드전환의 기저언어(matrix language) 설정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3) 'Naver'에 제시된 각 그룹들의 노랫말들이 원 노랫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철자 표기상 오류의 가능성도 있음을 밝힌다.

어 있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1. 일반 구어영어 사용 사례

K-pop 노랫말들에 포함된 영어 단어, 구, 절, 문장 들은 대부분이 일반 구어 영어이다. 이중 특히 구어영어 표현들의 특징인 조동사 및 어휘의 축약형 사용은 모든 K-pop 노랫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예)
I already know what u *gonna* say
I *wanna* keep it that way
I don't ever *wanna* let u go
(비스트: 불러보지만)

Wassup you guys
Do you *wanna* play?
(씨앤블루: Ready N Go)

Now throw your hands up the airrrr
Wave'em Like you don't careee
Now throw your hands up the airrrr
And *Wave'em* Like you Just don't care
(2NE1: Pretty Boy)

이러한 구어적 축약형 사용은 일부 영어 어휘들을 알파벳으로 축소해서 사용하는 것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노랫말이 구어가 아닌 문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예)
I already know what *u* gonna say
I wanna keep it that way
I don't ever wanna let *u* go
(비스트: 불러보지만)

넌 참 멋져 *U*'re My Prince
친오빠가 나타나 경고했어
(에프엑스: Gangsta Boy)

Everybody *plz* don't stop 내 목소리 들리게
아침해가 밝아와도 just we belong together
Everybody *plz* don't stop you got me goin crazy
우릴 따라 just one step two step
(빅뱅: Hands Up)

나만의 상상 둘이 la la like (Happy day)
단둘이 *luv luv luv* (Sunny day)
(샤이니: SHNee Girl)

4.2. 미국흑인영어 사용 사례

일부 K-pop 노랫말들에서는 미국흑인영어 사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K-pop이 R&B, hip-pop, rap 등 미국 흑인 음악 장르들을 수용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인해 노랫말에 미국흑인영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흑인영어는 표준미국영어와 음운론적, 어휘형태론적, 통사론적 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Cukor-Avila, 2002; Fajaryani와 Yuliyant, 2013; Green, 2002; Kirkpatrick,

2007; Thomas, 2007; Weldon, 1994). AAVE는 다양한 변이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이형들의 언어적 자질들을 모두 기술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자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4.2.1. AAVE 음운론적 특징

AAVE의 음운론적 특징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Fajaryani와 Yuliyant, 2013; Thomas, 2007).

1) 자음

음위전환(metathesis)
ask → /æks/, wasp → /waps/ 등

/r/ 생략
four, over, brother, hard, here, scared 등에서 /r/ 생략되어 발음됨.

양치마찰음 /Θ/, [ð]의 변이:
/Θ/는 /t/, /f/ 로 발음되고, [ð]는 /d/, /v/로 발음됨.
month → /mʌnf/ 또는 /mʌnt/, this → /dɪs/

자음군의 단순화
두 개의 자음이 결합할 때 두 번째 자음이 파열음(stops)일 경우, 생략함.
past → /pæs/, desk → /des/, hold → /hol/, act → /æk/
hand → /hæn/, test → /tes/ 등

연구개비음 /ŋ/의 치경음화 [n]
tripping → /tripin/, singing → /sɪŋɪn/, wedding → /wɛɾɪn/, morning

→ /mɔɹnɪn/, nothing → /nʌfɪn/ 등

2) 모음
AAVE의 모음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중모음의 단일모음화(monophthongization), 또는 glide weakening을 들 수 있다(Thomas, 2007).
face → /fes/, goat → /got/, boil → /bɔl/ 등

4.2.2. AAVE 통사론적 특징

Kirkpatrick(2007: 62)은 AAVE의 주요 통사론적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동사 'to be'의 빈번한 생략
- 만성적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기술할 때 'be' 또는 'been'을 사용
- 극적 강조를 위해 이중(삼중) 부정 구문 활용
- 동사 어미변형의 최소화
- 동사 'to be'가 다른 동사와 결합할 때, 'to be'의 생략
- 'do' 생략
- 강조부정구문(emphatic negative structure)을 사용하여 강한 긍정적 사고(개념) 정립
- 소유격 ('s)를 사용하지 않음
- 수식어가 복수형을 나타낼 경우, 명사는 복수를 지칭할 경우에도 단수형 사용
- 명시적으로 과거시제를 강조하지 않는 한 현재시제 사용
- 동사 과거시제를 표시할 때 과거시제 형태소 '-ed' 붙이지 않음
- 부사에 '-ly' 사용하지 않음

- 부정관사 ‘a(n)’ 사용하지 않음
- 불변통사(invariant syntax): 동일한 통사구문을 사용하여 명령문, 의문문, 평서문을 만들 수 있음

4.3. K-pop 노랫말들의 AAVE 사용 사례

K-pop 노랫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AAVE 특유의 자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2NE1’과 ‘빅뱅’의 노랫말들에서 AAVE의 특징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4.3.1. 이중모음의 단일모음화

(예)
cuz you’r *ma* luv..
You’re *ma* girl and that’s *ma* world...
Ye baby...only one...
(빅뱅: 눈물뿐인 바보)

I Wanna Rock *YO* Body
I Wanna Make Some Noise
(2NE1: 박수 쳐)

4.3.2. 연구개비음 /ŋ/ 의 치경음화

연구개비음 /ŋ/ 으로 끝날 경우 이를 치경비음 /n/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현상은 K-pop 노랫말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예)

i've been *searchin*' for my baby the one to come and save me and this you know ...

everyday *thinkin*' so deep everynight *turnin*' in heat it is why all this here is happening to me ...

baby got the beauty *stayin*' or to go yo when she shake her buty get up

out the way yo i'm oh so serio really doe silly bro neva know see it in a video

t o p got crazy doe *blazin* flow phase me no they be never *hearin*' what i'm *sayin*' doe

i know i know G got the glow straight up phenomenon why becuz i said so

shock the world when GD put the let go rock the girls and let'em hear the real flows angin' and i'm *ringin'em* high that's the shit straight *flamin'* and i'm *blazin'em* right

the real shit aint no *fakin*' we be *makin*'it tight now's the time to get up baby shake it all night

(빅뱅: So Beautiful)

4.3.3. 'be' 동사의 생략

(예)

I ____ crying I ____ crying I ____ crying

I'll ____ flying I'll ____ flying I'll ____ flying

I'll ____ flying..

(인피니트: Crying)

4.3.4. 부정구문(negation)

AAVE의 문법적 특징 중의 하나인 'ain't'를 사용한 부정문들이 K-pop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
You *ain't gotta hurt*
You *ain't gotta hurt*
she *ain't coming*
shes gone gotta be moving on
(2PM: Heartbeat)

AAVE 부정구문 특유의 이중부정구문도 K-pop 노랫말에서 발견된다.

(예)
she is so beautiful *ain't never ac*t stuck up or shady one hundred percent all lady
and this you know she is so beautiful yo yo ...
the real shit *ain't no fakin'* we be makin'it tight now's the time to get up baby shake it all night ...
(빅뱅: So Beautiful)

특히 AAVE에서 발견되는 부정도치 구문도 K-pop 노랫말에서 발견되었다.

(예)
Can't nobody can't nobody hold us down
Can't nobody can't nobody hold us down

Cuz We keep rockin' we we rock rockin' yeah yeah yeah
(2NE1: Can't Nobody)

4.3.5. 동사 어미변형의 최소화

AAVE에서 동사의 어미변화가 최소화되는 현상도 K-pop 노랫말에서 발견되었다.

(예)
Cuz I Got You Sweating In This Weather
All Them Heads *Be* Turning True Dat
(애프엑스: Hot Summer)

4.3.6. 미래(Future) 시제 'gon'/'gonna' 사용

AAVE에서는 미래 사건의 경우 'gon' 이나 'gonna'을 사용하는데, K-pop 노랫말에서도 이러한 미래 시제 사용이 발견된다.

(예)
We *gon'* let it all out tonight GIRL
See the name T.O.P up in lights GIRL
Bring it o-o-o-off the ground
Big bang no doubt We *gon'* turn it out for sure
(빅뱅: 가라가라 고)

심지어 K-pop 노랫말에서는 AAVE에서만 사용되는 비속어 어휘도 발견된다.

(예)
빠져 빠져 버려 baby
Shawty Shawty Shawty Shawty
(슈퍼주니어: Sorry Sorry)

4.4. K-pop 노랫말들의 한국식 영어 사용 사례

한국식 영어를 영어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난 19세말 조선의 대외개방과 함께 도입된 영어 사용과, 특히 일제식민지배가 종결된 후 우리 사회가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된 결과, 부분적으로 한국식 영어 자질들이 형성되고 있다(Shim, 2003). 특히 영어 사용에서 한국어의 전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 영어 사용의 오류들이 발생하게 된다(Kosofsky, 1991). 이러한 전이 현상은 K-pop 노랫말들의 영어 표현들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 외국어 학습 시에 모국어의 전이현상은 자연스러운 언어학습의 과정으로서, 특히 모국어의 전이가 부정적 외국어 학습 결과로 이어질 때 비문법적 언어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현상을 언어간섭(interference)이라 부른다(Brown, 2007). K-pop 노랫말들에서 나타난 한국어의 언어간섭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4.4.1. 주어 및 목적어 생략

한국어는 맥락을 통해 주어나 목적어가 누구(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문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비문법적이다. 다음 예들에서 보듯이 영어문장들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예)
I gotta *love now* 왜 나를 흔들어 놓고
자꾸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I'm gonna *love now* 이렇게 내게 다가와
나의 맘을 흔들어 이런 기분 난 처음이야
(포미닛: First)

Tell you Tell you 사랑을 말할게 *Tell you Tell you* 내 사랑 고백해
Love you Love you 내 손을 잡아줘 *Kiss you Kiss you* 영원히 사랑해
(씨앤블루: Love Girl)

4.4.2. 관사 생략

한국어 문장에는 명사가 단수일 경우 영어 관사 'a(n)'에 해당하는 관사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받아 영어 문장에서 단수명사 앞에 a(n)이 생략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정관사 'the' 생략도 발견된다.

(예)
Hey babe *It's rainy day*
I can see the road in the rain
I'm not *weak man*
I will go to the world
(씨앤블루: Ready N Go)

All I want is you All I want is you
Only one is you

Only one is you in my life
(샤이니: Life)

이외에도 K-pop 노랫말들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예)
Every day I just can't control
Every night the loneliness my love (= Every night I feel loneliness, my love)...

Every day I shock (= Every day I feel shocked)
Every night I shock
(비스트: Shock)

ye-ye-yes *I'm the baddest Female* (= I'm the worst female)
Seoul city ever had
(2NEI: Please Don't Go)

you let me girl, keep dreaming about you, hey girl
you don't know what is love (= You don't know what love is)
(샤이니: Replay)

Would you feel the same if I told you this feeling is true
I wonder what would you do (= I wonder what you would do)
(씨앤블루: One of a Kind)

이젠 I feel a little *confuse* (= confused)
알 수 없는 너는 나만의 Boo 너만 바라봐
(샤이니: 소년, 소녀를 말하다)

Stop The Time Keeps Running
Way Behind So Start Your Stepping
Cuz In This State *You're Danger* (= You're in danger)
(에프엑스: Dangerous)

Girl, *you're so fly, fly* (= You fly so)
Gotta make you mine, mine
(티아라: 뷰티플 걸)

So Everybody Hands Up High
Do Your Hands Up In The Sky (= Put your hands up)
(티아라: 놀아볼래)

4.4.3. 한국적 의미 표현

K-pop 노랫말들의 한국식 영어 표현은 단순히 문법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의미론적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영어 원어민 화자의 입장에서는 의미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발견되었다.

(예)
내게로 와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I can give you electricity, I can give you electricity (= I can electrify you)
(2NE1: Electricity)

이 파워게임에서 밀려 버린 자가 너 하나뿐이겠냐?
Just close your lips. *Shut your tongue*. (= shut your mouth)
(슈퍼주니어: Mamacita)

Complicate girl (= picky girl)
Don't be silly girl
You're my miracle
(샤이니: Ring, Ding, Dong)

일부 K-pop의 경우, 신조어를 만들거나 기존의 영어 어휘를 변형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 일부 노랫말에는 이모티콘(emoticon)이나 수학기호 등 비언어적 형태들의 사용도 발견된다.

(예)
데려다줘 I want it, I'm like a *you-aholic*
(소녀시대: you-aholic)

거침없이 쏟아지는 이 음악에 Move
I like the *Muzik*, like like like that *Muzik*
(포미닛 Muzik)

Do it do it Chu~♡
It's true true true true it`s You~
Do it do it Chu~♡
Do it do it Chu~♡
(에프엑스: Chu-Love)

ME+U Honey Yeah 어려운 이 문제 Oh 그대와 날 더하면 두근두근 Crazy
ME+U Teach Me Yeah 복잡한 문제 Oh 그대와 날 더하면 Oh 몰라 몰라 왜이래
(에프엑스: Me + U)

위에서 K-pop의 노랫말들에 사용된 영어 변이형들을 일반 구어영어, 흑인미국영어, 한국식 영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Lee(2004)는 K-pop 노랫말들의 언어 혼용을 분석한 결과, 영어의 경우, 표준 구어영어 이외에 한국식 영어와 AAVE 등의 상이한 영어 변이형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도 Lee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Lee가 분석한 이전의 K-pop 노랫말들에 비해, 최근의 K-pop 노랫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영어 변이형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moniyi(2006)는 나이지리아 hip-pop 노랫말에 사용된 영어 변이형들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영어 변이형들을 활용하여 나이지리아 hip-hop을 글로벌화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즉, world Englishes를 글로벌화의 효과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Bamgbose, 2001). K-pop 노랫말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상이한 영어 변이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노랫말에 일반 구어영어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 영어사용권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으며, hip-pop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AAVE를 포함함으로써 이들 hip-hop 문화와의 동질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한국식 영어표현도 수용함으로써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도 표현하고 있다. K-pop 노랫말들은 상이한 영어 변이형들 간의 월경(crossing)(Rampton, 1995)을 시도함으로써 자신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K-pop 노랫말들에 사용된 영어 변이형들은 혼종적 정체성 수행(Pennycook, 2003)의 도구인 것이다.

5. K-pop 노랫말 코드전환의 사회언어학적 기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pop 노랫말들은 영어변이형들을 활용하여 복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의 이중언어 코드전환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심리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언어 코드전환의 기능들에 대해, Davies와 Bentahila(2006)는 모로코,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음악인 rai와 서구 음악인 rap 노랫말들의 코드전환을 분석한 결과, 코드전환이 동일문화권 소비자들과 이질 문화권 소비자들의 두 집단을 모두 아우르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북아프리카의 rai와 rap이 로컬화와 글로벌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Hiwatari(2007)는 일본 hip-pop 노랫말을 분석하여, 일본어 및 영어를 혼용하는 것이 다층위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이중언어 언어 혼용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 hip-hop의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가는 정체성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K-pop 노랫말들도 영어 변이형들을 복수의 이질적 정체성을 수행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의 혼종, 즉, 한국어/영어 또는 영어/한국어의 코드전환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tchie와 Bhatia(2013)는 이중언어 코드전환을 유발하는 요인들로서 다음의 것들을 들고 있다.

1.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 및 관계
2. 상황적 요인: 담화 주제, 언어 할당
3. 메시지 내재적 요인
4. 언어태도

여기서는 이들 코드전환 유발 요인들 중 메시지 내재적 요인을 중심으로 K-pop 노랫말들의 이중언어 코드전환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5.1. 메시지 내재적 요인들

Ritche와 Bhatia(2013)는 코드전환의 메시지 내재적 요인들로서, 인용, 반복, 메시지 보완, 주제-코멘트(topic-comment) 구조, 얼버무리기(hedging), 감탄사(interjection) 등을 들고 있다. K-pop 노랫말들의 코드전환들의 분석 결과, 다양한 메시지 내재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1. 메시지 보완

문장 전체를 한 언어로 처리하지 않고 코드전환을 통해 일부를 타 언어로 마무리함으로써 메시지를 보완하고 있다.

(예)
다 같이 날아보자 up in the sky
더 높이 갈테니 정신을 붙잡아
(2NE1: 날 따라 해봐요)

One &one &one &one, *we belong together 말하지 않아도*
Oh, can't you feel my heart 조금만 기다려
(티아라: One & One)

5.1.2. 주제-코멘트

K-pop 노랫말들에는 '주제-코멘트' 구조에서, 주제(topic)를 한 언어로, 이에 대한 서술(comment)을 타 언어로 코드전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
내가 이럴 때마다 *남자들 다*
They be like damn d damn!
(2NE1: 난 바빠)

항상 *넌 Nothing better than you*
여기 봐 내 맘 알잖아
(포미닛: You Know)

5.1.3. 반복

동일한 내용을 코드전환을 통해 반복하는 사례들로 발견된다.

(예)
Everybody hands up high
두 손 머리 위로 올려봐
(2NEI: Don't Stop the Music)

우리들은 바래 남잔 남자다워야 해
You got to be a real man
(2NEI: Pretty Boy)

5.1.4. 감탄사(interjections)

코드전환의 또 다른 기능으로서 내용적 의미가 없는 감탄사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예)
내가 니 엄마야 *Yeah Yeah Yeah*
언제까지 날 헷갈리게
내가 제일 편하다는 그런 말은 그만해
Wo Wo Wo 지금 너는 Dangerous
아슬아슬한 보기도 딱한
Wo Uh Uh Uh 지금 넌 Da Da Dangerous
(에프엑스: Dangerous)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No No No No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Oh Oh Oh Oh Oh
너무 짜릿짜릿 몸이 떨려
Gee Gee Gee Gee Gee
Oh 젖은 눈빛 *Oh Ye*
Oh 좋은 향기 *Oh Ye Ye Ye*
(소녀시대: Gee)

5.1.5. 시적 운율 효과

일부 K-pop 노랫말들은 시적 운율감을 살리기 위해 코드전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One 생각없이 늘 내가 내가 신은 *Shoes*
Two 내 맘대로 또 자꾸자꾸 하는 *Pose*
Three 아무렇게나 살짝살짝 바른 *Rouge*
(포미닛: Hot Issue)

나를 가슴 뛰게하는 *Flow*
어디라도 좋아 저기 *Blow*
(티아라: 놀아볼래)

Cuz I'm so bad bad but I'm so *good good*
Yeah I'm so bad bad and I'm so *hood hood*
(2NE1: Can't Nobody)

5.1.6. 후킹(hooking) 효과

K-pop 노랫말들이 다른 대중가요들의 노랫말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중요한 점으로 후렴구의 빈번한 반복을 들 수 있다. K-pop은 노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절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노랫말을 보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노랫말과 멜로디를 사용하여 만든 노래를 후크송(hook song)이라 부른다(강현구, 고홍준, 2013) 이러한 반복성을 활용하여 노래에 대한 강력한 각인을 심어주는 일종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K-pop 노랫말들에서 코드전환은 이러한 중독적 반복을 위한 아주 효과적 언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분석 대상의 모든 K-pop 노랫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예)
이제 준비해 봐 Who's next? (4minute!)
지금 보여줘 봐 Who's next? (4minute!)
좀더 들려줘 봐 Who's next? (Who's next?)
4minute 4minute Keep runnin' runnin' hey!
이제 준비됐어 Who's next? (4minute!)
지금 보여줄게 Who's next? (4minute!)

크게 들려줄게 Who's next? (Who's next?)
4minute 4minute Keep runnin' runnin' hey!
(tik tok tik tok tik) 4minute
(포미닛: Who's Next)

Like this yo Like this
위 아래로 흔들어 Like this
Like this yo Like this
몸을 돌려 좌우로 Like this

Like this yo Like this
파도처럼 내려가 Like this
Like this yo Like this
다같이 Stop 자 흔들어봐
(원더걸스 Like This)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pop 노랫말들은 기존의 한국 가요들과 달리 노랫말들에 영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한 코드전환을 메시지 전달의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K-pop 그룹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코드전환이 K-pop 노랫말들의 다양한 메시지 전달 기능 수행을 위한 중요한 언어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6.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류확산의 첨병인 K-pop들의 노랫말들을 분석하였다. 노랫말들을 분석한 결과, 표준 구어영어, 미국흑인영어, 한국식 영어 등

의 변이형들이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K-pop은 한국어 이외에 이들 영어 변이형들을 활용하여 국내를 넘어서 지구촌의 모든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어가 명실 공히 세계 제일의 글로벌 통용어로 부상한 오늘날, 노랫말 속에 영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한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아시아 및 전 세계의 젊은 대중들까지 아우르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K-pop은 글로벌화를 시도하면서도 나름대로 정교한 언어적 장치들을 사용하여 local과 global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어사용의 경우, 일반 구어 영어 뿐 아니라, 미국흑인영어, 한국식 영어 등 영어 변이형들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로컬적 정체성들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즉, 상이한 영어 변이형들을 로컬적 정체성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 영어와 한국어 간의 코드전환을 활용하여 다양한 메시지 전달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어, 또는 영어만의 단일 언어보다 폭넓은 사회언어학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pop은 상이한 언어들 및 언어 변이형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 노랫말이 지니는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며 글로벌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K-pop의 노랫말들은 이종 언어들 및 언어 변이형들 간의 적극적 '언어 버무리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K-pop이 로컬이 배제된 글로벌화가 아닌, 로컬과 글로벌이 융화된 글로컬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K-pop 노랫말들의 언어 간 혼종에 의한 글로컬화 전략은 Pieterse(2010)가 제시한 '이질 문화 간 혼합주의'적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현구·고홍준 (2013). K-pop의 음악 패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1(3), 한국

디지털정책학회. 95쪽~100쪽.
박준언 (2010). 우리나라 광고문들의 이중언어사용 분석, <이중언어학> 43, 이중언어학회. 131쪽~162쪽.
박준언 (2014). K-pop 노랫말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 <이중언어학> 54, 이중언어학회. 157쪽~184쪽.
양재영 (2011). 케이팝(K-Pop)의 글로컬(Glocal) 전략과 혼종정체성: '포스트-한류'시대 케이팝의 사회문화적 지형에 대한 소고, <음악응용연구> 4, 한국음악응용학회. 19쪽~37쪽.
이수안 (2012). 유럽의 '한류'를 통해 본 문화혼종화: K-pop 열풍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1), 한독사회과학회. 117쪽~146쪽.
Bamgbose, A. (2001). World Englishes and globalization. *World Englishes, 20*(3), 357-363.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Pearson Longman.
Cukor-Avila, P. (2002). She say, she go, she be like: Verbs of quotation over time in 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American Speech, 77*(1), 3-31.
Davies, E. E., & Bentahila, A. (2006). Code switching and the globalization of popular music: The case of North African rai and rap. *Multilingua, 25*(4), 367-392.
Fajaryani, N., and Yuliyant, E. (2013). Historical background and some features of American black English vs American standard English. *Journal Ilmiah Universitas Batanghari Jambi*, *13*(3), 78-81.
Green, L. J. (2002). *African American English: A linguistic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watari, Y. (2007). Anglicisms, globalisation, and performativity in Japanese hip-hop. In Monica, H. (ed.), *Bilingualism: A Social Approach*, 96-108. Basingstoke, UK: Macmillan.
Kirkpatrick, A. (2007). *World Englishe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osofsky, D. (1991). *Common problems in Korean English*. Seoul: 외국어연수사.
Lee, J. S. (2004). Linguistic hybridization in K-Pop: discourse of self-assertion and resistance. *World Englishes*, *23*(3), 429-450.
Omoniyi, T. (2006). Hip-hop through the world Englishes lens: A response to globalization, *World Englishes*, *25*(2), 195-208.
Pennycook, A. (2003). Global Englishes, rip slymes, and performativit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7(4), 513-533.

Pieterse, J. N.(2010). Globalization and culture: Three paradigms. In G. Ritzer and Z. Atalay (eds.), *Readings in Globalization: Key Concepts and Major Debates*, 319-318. Oxford: Wiley-Blackwell.

Rampton, B. (1995). *Crossing: Language and ethnicity among adolescents*. London: Longman.

Ritchie, W. C., & Bhatia, T. K. (2013).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language mixing, In T. K. Bhatia and W. C. Ritchie (eds.), *The Handbook of Bilingualism and Multilingualism (2nd ed.)*, 375-390. Oxford: Wiley-Blackwell.

Robertson, R. (2010).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iety-heterogeneity. In G. Ritzer and Z. Atalay (eds.), *Readings in Globalization: Key Concepts and Major Debates*, 334-343. Oxford: Wiley-Blackwell.

Shim, R. J. (2003). Codified Korean English: Proces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 *World Englishes*, *18*(2), 247-258.

Thomas, E. R. (2007). Phonological and phonetic characteristics of 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1*(5), 450-475.

Weldon, T. (1994). Variability in negation in 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6*(3), 359-397.

박준언(Park, Jun-Eon)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6-74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전화번호: 02-820-0341
전자우편: pjeon@ssu.ac.kr

접수일자: 2015년 10월 4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23일